

페르노리카 코리아 부티크 몰트위스키 '아벨라워' 브랜드 3종 국내 출시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원료 선별부터 제조과정까지 진정성이 담긴 부티크 몰트위스키 아벨라워(Aberlour)를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했다.

아벨라워는 이미 국내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고품격 싱글 몰트위스키로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다.

10월 23일부터 정식 시판된 아벨라워 제품은 12년 더블 캐스크(Aberlour 12 Year Old Double Cask), 16년 더블 캐스크(Aberlour 16 Year Old Double Cask), 아부나흐(Aberlour A'Bunadh) 등 3종이다.

아벨라워는 최고의 위스키 산지인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남다른 개성과 희소성을 겸비한 싱글 몰트위스키 제품들을 선보여왔다.

대량 생산 또는 효율성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진정성을 담은 제조 원칙을 고수해 '부티크'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퀄리티와 개성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더블 캐스크가 완성한 두 배의 깊이로 부티크 몰트로서 아벨라워의 특별함을 더한다.

스페인 셰리 캐스크와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 각각에서 최소 12년 이상 담겨 있던 원액이 만나 완성되는 아벨라워만의 더블 캐스크 숙성 방식은 타 브랜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정통성을 고수한다.



12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각 캐스크의 개성을 담은 서로 다른 위스키가 조화를 이루어 부티크 몰트로서 아벨라워만의 섬세하고 복합적인 특별한 맛을 탄생시켰다.

이때 아벨라워 산지의 특성을 제대로 담은 최고의 위스키가 완성될 수 있도록 오직 증류소 15마일 이내에서 생산된 최상급 보리만을 사용한다.

위스키 원액을 숙성하는 모든 캐스크 역시 아벨라워의 마스터 블렌더가 순수 선별해 작업, 부티크 몰트를 생산하는 열정과 정성을 보여준다.

아벨라워 브랜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이미 최고의 싱글 몰트위스키로 손꼽혀온 브랜드인 만큼 아벨라워의 국내 론칭 소식에 관련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싱글 몰트 애호가들의 기대가 남다르다"며 "특별한 개성과 희소성을 겸비한 가치 있는 부티크 몰트로서 싱글 몰트 위스키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벨라워 싱글 몰트위스키 3종 제품은 싱글 몰트 바 및 전국 와인앤모어 매장(테일라점 제외)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격은 700ml, 전국 와인앤모어 판매가 기준으로 12년 더블 캐스크 11만9천원, 16년 더블 캐스크 24만원, 아부나흐 21만원이다. ▼



“12년산 퓨어 몰트 원액 맛을 즐겨보세요” 저도주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 12' 시판

TOP SMOOTH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최초의 17년산 퓨어 몰트 저도주인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 17'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최초의 12년산 퓨어 몰트 저도주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 12(이하 스무스 12)'를 새롭게 선보였다.

대한민국 대표 위스키 브랜드인 임페리얼은 지난해 11월 최초의 17년산 퓨어 몰트 저도주인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 17'을 출시해 국내 저도주 시장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페리얼은 1994년 안목 높은 한국 소비자를 위해 국내 최초 프리미엄 로컬 위스키를 출시한 이래 한국인 안목에 대한 노하우와 부드러운 위스키를 만들어온 기술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최초로 '17년산 퓨어 몰트 저도주'를 내놓았다.

이어 12년산 퓨어 몰트 저도주인 '스무스 12' 출시를 계기로 퓨어 몰트 저도주의 재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스무스 12'는 그레인 위스키 원액 없이 희소성 높은 12년산 퓨어 몰트만을 사용한 35도 저도주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부드러운 스카치위스키 메카로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 내 글렌키스 증류소의 12년 몰트 원액을 사용해 혁신적인 부드러움을 완성했다.

'스무스 12'는 희소한 고연산 퓨어 몰트 원액과 35도의 도수가 완성한 톱 클래스의 부드러움이 특징이다. 달콤한 꽃향기와 은은한 오코향이 숙성된 바닐라 향과 조화를 이룬다. 다양한 과일의 달콤함에 골든 허니의 달콤함이 더해져

유니크한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바들'은 임페리얼의 상징인 버건디 컬러를 전면으로 내세워 제품의 진정성을 부각시켰다. 다이아몬드 앵글과 샴페인 골드 엠티지가 어우러진 디자인은 마치 위트를 지닌 부드러운 젊은 리더를 연상시킨다.

임페리얼은 '스무스 12'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희소한 12년산 퓨어 몰트 원액과 35도의 도수가 완성한 최상의 부드러움을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임페리얼은 '스무스 12' 출시를 맞아 '반안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과 손잡고 스무스맨들을 위한 공간인 '더 스무스 호텔 앤 몰트 바(The Smooth Hotel & Malt bar)'를 새롭게 오픈한다.

서울 중구 반안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신

개념 팝업 스토어 '더 스무스 호텔 앤 몰트 바'에서는 희소한 12년, 17년산 퓨어 몰트 원액과 35도의 도수가 선사하는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스무스 몰트 바'가 특별 운영된다.

더 스무스 호텔 앤 몰트 바에서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전파해 온 스무스맨들의 비밀기지'라는 콘셉트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의 다양한 음용법을 배울 수 있는 멘토링 클래스 및 칵테일 클래스가 열린다.

호텔 객실에서는 더 스무스 콘셉트 룸을, 레스토랑에서는 더 스무스 시그니처 메뉴를 함께 선보인다. ▼